isu

2026 AUTUMN
VOL. 126



양윤화, <오렌지> 2025, 60수 고밀도 워싱 코튼, 양털 테리 원단, 방수 원단, 자수 실, 저데니아 솜, 500×500cm. 작가 제공.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특별 기고
김명환 단장

이수페스타
NO FESTA, NO LIFE

이수인의 반려생활
이수펫갤러리

이수더지니어스
나도 혹시 천재일까? 뇌섹 이수인 소환!

이수텍스트힙
요즘 가장 힙한 일, 손으로 따라 쓰는 필사

ISU PLACE
신석호와 양윤화의 전시 ≪로딩존(Loading Zone)≫

CONTENTS







04 김상범 회장 현장 경영

05 Focus & News

09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특별 기고
김명환 단장
"다음 30년을 충전하다"

18 이수페스타
NO FESTA, NO LIFE

22 이수인의 반려생활, 이수펫갤러리
신주연 대리(이수앱지스 플랫폼팀)

24 이수 플레이리스트
귀로 하는 영혼의 호흡, 인생 음악 공유해요!
박기환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공무팀)
한예지 대리(이수건설 인사총무팀)
김주호 사원(이수앱지스 인사총무팀)

28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이진호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공무팀)
김나영 선임(이수페타시스 품질보증2팀)
김태훈 대리(이수건설 시흥하중 LH)

32 이수더지니어스
나도 혹시 천재일까? 뇌섹 이수인 소환!

36 이수텍스트힙
요즘 가장 힙한 일, 손으로 따라 쓰는 필사

40 이수 테이블
맛있는 씨름, 한 접시의 카타르시스
- 낙지

48 ISU PLACE
신석호, 양윤화 전시
<로딩존(Loading Zone)>

53 이수 간식 창고
간식 서프라이즈 - 우리 팀에게 쏘세요!

57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컬러링 응모작 소개

58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COVER STORY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로딩존'의
개념에서 출발해 신체와 공간, 물질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신석호와 양윤화의 전시
<로딩존(Loading Zone)>이 2026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스페이스 이수에서 개최된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6년 가을호 통권 126호

발행일	2026년 10월 12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이신유 02-590-6811
사보기자	이수화학(김신원·안인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신선이·이하연) 이수페타시스(이준경·한수진) 이수건설(강나영) 이수시스템(서준혁)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앱지스(양예슬)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LEE & LEE work shop 기획실장 이신우, 디자이너 유선영
인 쇄	LEE & LEE work shop

※이수그룹 사보는 친환경 FSC인증 펄프로 만든 용지를 사용해 제작합니다.

FSC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만든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됩니다.

새로운 50년의 출발

김상범 회장,
이수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이수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

신뢰와 안전의 기본 위에 100년 기업으로

김상범 회장은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수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식회사 이수 김세민 대표이사, 이수건설 김학봉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수건설 임직원과 현장소장, 공사·공무·안전 책임자 등 약 170명이 자리했습니다.

김상범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수건설의 지난 50년을 "단순한 성취를 넘어 고객과 사회로부터 쌓아온 단단한 신뢰의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신뢰받는 품질 경쟁력과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한 현장이라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 생존의 길을 개척하며 성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토월 및 스토리보드 전시, 기념 퍼포먼스, 공로상 및 장기근속자 시상식 등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왼쪽 네 번째),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오른쪽 네 번째),
이수건설 김학봉 대표이사(왼쪽 세 번째)



임직원 및 현장소장 등 약 170명이 참석한 이수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

(주)이수

3X3 농구팀과 후원 협약 체결, 스포츠 CSR 영역 확장



이수그룹은 지난 7월 13일 3X3 농구팀 이수체인저스 및 이수챌린저스와 공식 후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수그룹은 두 팀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회 우승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합니다. 장기적인 동행을 이어가며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CSR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수체인저스는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출전한 첫 무대인 'KBA 3X3 프라임 리그 2026' 4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국제농구연맹(FIBA) 3X3 베이징 챌린저'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이수

'2026 통합 IR 데이' 개최, 중장기 성장전략 공유



이수그룹은 지난 8월 18일 주요 계열사들의 상반기 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2026 통합 IR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IR 데이는 이수화학, 이수페타시스,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이수앱지스가 참여해 상반기 실적과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미래 성장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룹 출범 30주년을 맞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대하는 통합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수화학이 안정적인 사업 기반으로 신사업 발굴에 나서며, 이수페타시스의 AI 고성능 하드웨어,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배터리 소재, 이수앱지스의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을 성장축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수화학



기관투자자 초청
공장투어 진행

이수화학은 지난 7월 2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를 초청해 온산공장과 울산공장 투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투자자들의 이수화학 생산공정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의 경쟁력과 역량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업 구조와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이수화학의 생산 설비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수화학은 앞으로도 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회사와 주요 사업을 폭넓게 알리는 적극적인 IR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개인투자자 대상
실적 발표회 개치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지난 8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첫 행사로, 경영진이 직접 주요 경영실적과 사업별 현황, 향후 성장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영 방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개인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며, 정보 격차를 줄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이번 발표회를 출발점으로 경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더욱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마이보드 교육 과정 진행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9월 3일 36기 신입사원들의 최종 발표를 끝으로 마이보드(My Board)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이보드는 PCB 기술을 배우고 자신만의 PCB를 직접 제작하는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자 공채 신입사원의 필수 과정입니다. 신입사원들은 PCB 제작 전 과정을 수행하며 공정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최종 발표에 참석한 최창복 대표이사는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며 “현업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마이보드를 통해 성장한 36기 신입사원들이 현업에서도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이수시스템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이수시스템은 지난 7월 3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씨스퀘어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 시상, 외부 명사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식 행사 이후에는 임직원 단체 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수시스템이 걸어온 30년을 돌아보고, 회사 성장에 기여한 구성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외부 명사 특강에는 ‘축구를 통해 풀어낸 조직 내 소통 및 팀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임직원들은 친숙한 축구를 통해 조직 내 소통과 팀워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수창업투자



<전자오락수호대> 개봉 예정

이수창업투자는 2026년 가을 애니메이션 <전자오락수호대>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자오락수호대>는 네이버 웹툰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7년간 연재된 동명의 인기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원작은 누적 조회수 3억 4천만 회, 평균 평점 9.98점을 기록하며 두터운 팬덤을 확보한 검증된 IP입니다. 비디오 게임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3D 애니메이션 기술과 픽셀 스타일을 결합해 고전게임 특유의 세계관과 감성을 스크린에 구현했습니다. 어린이 관객에게는 신선한 모험을, 성인 관객에게는 어린 시절 게임의 추억과 향수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수앱지스



희귀질환 치료제 해외시장 확대 본격화, 파바갈·애브서틴 글로벌 진출 가속

이수앱지스는 지난 6월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의 페루 첫 수출을 시작하며 해외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은 지난해 12월 페루 보건당국의 품목허가 획득 이후 이뤄진 것으로, 중남미 시장 확대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주력 제품인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도 중남미를 비롯해 중동·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수앱지스는 축적된 해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파바갈의 공급 국가를 확대하고, 애브서틴의 해외 진출도 지속해 글로벌 희귀질환 치료제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30년을 충전하다"

리튬이온전지 30년의 경험으로 바라본 차세대 배터리



김명환 단장

한국화학연구원 차세대 이차전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장

< 약력 >
- 전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 전 LG에너지솔루션 CPO(사장)
- 대한민국 1호 국가특임연구원 선정

< 학력 >
- 서울대학교 공업화학 학사
- KAIST 화학공정공학 석사
- 美 애크런대학교 고분자공학 박사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는 '차세대 배터리, AI, 바이오'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 사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사보에서는 핵심 사업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의 시선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 차세대 이차전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장의 기고를 통해 배터리 산업 30년의 경험을 돌아보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 본 기고문은 외부 필자의 견해로 본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97년 미국의 한 배터리 학회에서 저는 "한국 배터리 업체가 일본을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소니를 비롯한 일본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한국은 양산기술이 전혀 없었으며 개발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까지 대부분 일본에 의존했으니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해인 1996년 리튬이온전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인 2011년, 한국은 소형 리튬이온전지 세계 시장점유율 1위에 올라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전지 개발을 처음 시작하던 무렵 "전지에 발을 담그면 두 발 뻗고 못 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30년을 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소재 하나를 찾는 일부터 수많은 셀을 같은 품질로 양산하는 일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고, 출시된 제품이 사용 환경에 따라 수년 뒤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경쟁력을 얻으려면 실패와 시간, 투자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과 실행이 앞으로 3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태양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배터리의 더 큰 사명이다

배터리 산업의 더 큰 의미는 지구의 에너지·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인류는 땅속에 저장된 석탄·석유·가스를 꺼내 쓰며 성장했지만, 유한한 자원을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남겼습니다. 반면 태양에너지는 지구 밖에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의 일부만 제대로 활용해도 화석연료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과 함께 그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핵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기반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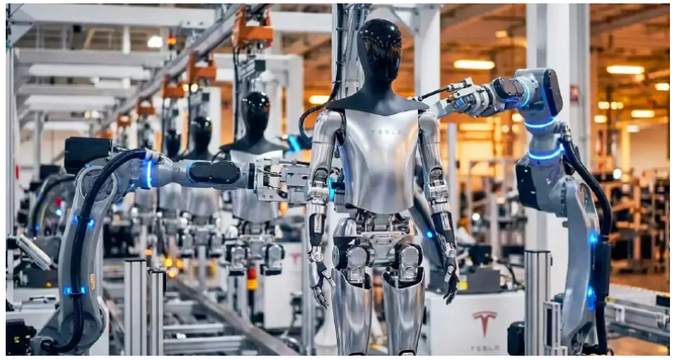
태양광 발전량은 낮과 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는 낮에 만든 전기를 밤에도 쓰게 해 줍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배터리의 역할도 커지는 이유입니다. 태양에너지와 배터리의 결합은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중요한 축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부품을 넘어 화석자원을 덜 태우면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하는 기반기술입니다. 이는 석유를 귀중한 화학원료로 오래 활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옷과 포장재, 플라스틱과 기능성 소재 등 수많은 제품이 석유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자원을 한 번 태워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버리기보다 소재로 오래 쓰고 순환시켜, 미래 세대에게 자원의 선택권을 남겨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배터리를 요구한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의 기반이 된 배터리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전지는 지난 30여 년간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으면서 가격을 낮춰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소재로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안전성·수명·원료 공급망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배터리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AI 데이터센터의 급증은 ESS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수요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9월 G20 혁신 장관회의(Innovation Ministerial)에서 10년 뒤 휴머노이드 로봇이 10억 대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예측이지만, 장차 로봇 수가 인류에 필적한다면 배터리 수요도 거대해질 것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



일론 머스크는 10년 뒤 휴머노이드 로봇이 10억 대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테슬라)


(이미지컷)

사람 곁에서 안전하게 오래 일해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고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갖춘 차세대 배터리의 유망 수요처다.

저는 전고체전지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특히 적합하다고 봅니다. 불이 붙기 쉬운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를 사용해 안전성과 에너지밀도를 함께 높일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곁에서 움직이고 오래 일해야 하는 로봇에는 두 가지가 모두 절실합니다. 초기 가격은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비쌀 가능성이 크지만, 로봇은 전기차보다 배터리 가격에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한 대가 3만 달러, 배터리가 300달러(테슬라 옵티머스에 사용되는 배터리팩 용량은 2.3kWh, 가격을 130달러/kWh로 가정)라면 배터리 비중은 1%에 불과합니다. 전고체전지가 다섯 배 비싼 1,500달러여도 로봇 가격의 5% 수준입니다. 실제 사용 조건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가격에 민감한 대중형 전기차보다 휴머노이드에서 초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 배터리로 전고체전지가 가장 주목받고 있으나 용도에 따라 필요한 배터리 종류도 달라집니다. 전고체전지가 안전성과 고에너지밀도를 함께 노린다면, 리튬금속전지는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공정을 대부분 활용하기 위해 흑연 음극만 리튬금속으로 바꾸어 더 많은 에너지를 담으려 합니다.

리튬황전지는 가벼운 황을 활용해 초경량을 목표로 하며, 무게가 비행시간을 좌우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의 후보입니다. 소듐이온전지는 풍부한 소듐(나트륨)을 바탕으로 자원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점으로 삼아 ESS와 보급형 시장을 노립니다.

어느 기술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고체전지는 고체끼리 맞닿는 면에서 이온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고, 셀을 누르는 압력과 제조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리튬금속전지는 충·방전 때 리튬이 불균일하게


(이미지컷)

배터리 경쟁력은 혁신적인 소재와 안정적인 양산 공정이 함께 만든다.

자라거나 소모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리튬황전지는 황계 반응물이 전해액에 녹아 이동하며 성능을 떨어뜨리는 문제와 리튬금속의 안정성을, 소듐이온전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밀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 기술이 용도에 따라 공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이 물어야 할 것은 '최종 승자가 무엇인가'보다 '미래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남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답은 새로운 소재를 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소재만으로는 절반이다

30년간 배터리를 개발하며 얻은 교훈은, 경쟁력은 소재와 공정이 함께 만든다는 것입니다. 2005년경 전기차용 고안전성 세라믹 코팅 분리막을 개발할 때는 "안전성이 높아지는 대신 출력 저항과 원가는 나빠진다."며 내부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은 물론 성능과 원가까지 함께 풀지 못하면 전기차용 전지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각오로 도전했고, 결국 세계 배터리 업계에 널리 쓰이는 중요한 안전기술로 만들었습니다.

2007년 니켈 비중이 코발트보다 높은 NCM523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원통형 리튬이온전지에 상용 적용했을 때도, 실험실에서는 없던 코팅 불균일 문제가 양산에서 나타났습니다. "NCM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원가와 용량의 이점이 분명했기에 원인을 찾아 해결했습니다.

실험실의 성공과 양산의 성공은 다른 문제입니다. 양산 문제를 원천기술의 실패로 오인하지 않는 판단력과, 끝까지 푸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30년을 만드는 사람과 일하는 방식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과 일하는 방식입니다. PayPal과 Palantir를 창립한 피터 틸(Peter Thiel)은 「제로 투 원(Zero to One)」에서 남이 이미 한 것을 조금 더 잘하는 '1에서 n'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0에서 1'을 강조합니다. 연구개발자 역시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설명하며 시장까지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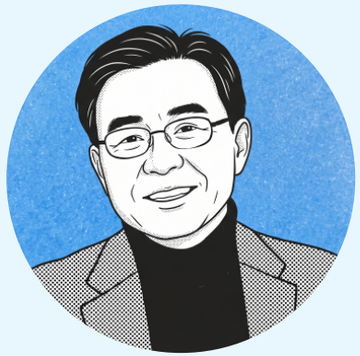
일본 교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Inamori Kazuo)는 「왜 일하는가」에서 성과를 '능력×열의×사고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강한 팀은 뛰어난 개인의 합이 아니라,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전문성을 보완하며 조직의 경계를 넘어 문제를 푸는 팀입니다. 새로운 일은 낙관적으로 구상하되 비관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다시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WSJ 칼럼니스트 출신 모건 하우절(Morgan Housel)은 「불변의 법칙(Same as Ever)」에서 조급함이 창의성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도 무리한 속도를 내면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고 합니다.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배터리와 소재 사업에서 변하지 않을 것은 안전성, 일정한 품질, 경쟁력 있는 원가, 안정적 공급, 그리고 고객의 신뢰입니다. 작은 개선과 시행착오는 당장은 느려 보여도 꾸준히 쌓이면 경쟁사가 쉽게 넘지 못하는 격차가 됩니다.

제가 기술개발을 하며 늘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30년 전 한국 배터리의 가능성을 낮게 보던 시절, 우리는 실패와 적자, 시행착오의 대가를 치르고 경쟁력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앞선 기업을 빠르게 따라가는 역량이 중요했지만, 차세대 배터리에는 아직 최종 승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과 시장의 기준을 만드는 선도자,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합니다.

Q&A 이수 구성원이 묻고 김명환 단장이 **답하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시장,
제조 경쟁력과 인재 확보에 대해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구성원들이
김명환 단장에게 질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궁금증과 고민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김광언 책임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선행연구팀

**차세대 배터리 중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주요 배터리 시장인 EV와 ESS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 리튬이온전지 대비 높은 가격을 감수하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EV나 ESS 외에 전고체 배터리의 특성상 특히 유리하거나
기존 리튬이온전지로 대체하기 어려운 응용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고체전지는 비싼 가격 때문에 수년 내에 전기차에 대량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고체전지가 비싸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공장과 가정에서 사람 곁에 머무는 로봇에는 안전성이 중요하고,
오래 일하려면 가볍고 작은 배터리에 많은 에너지를 담아야 합니다.
로봇 전체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전기차보다 배터리의 추가 비용을
받아들일 여지도 큽니다.
이 밖에도 사람 몸에 닿는 웨어러블 기기와 의료기기 등 안전성과 에너지밀도가
우선인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민 책임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전지재료사업팀

**전고체 셀 제조 중 고체전해질층 박막화 과정에서
가장 허들이 높은 제조 난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중에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 외에
확보해야 할 기술적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체전해질층을 얇고 넓게 만들면서 균열과 빈틈 없이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일이 큰 난제입니다. 압력을 가해 입자 사이 빈틈을 줄여야 하지만, 압력을 받은 얇은 층은 딱딱해지며 탄성을 잃어 취급과 적층 과정에서 손상되기 쉽습니다.
전극과 잘 맞닿는 상태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재와 제조공정 기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가격 외에 확보할 강점으로는 에너지밀도를 높이는 리튬금속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기술과, 용매를 쓰지 않고 전극을 만드는 건식 전극 공정을 꼽고 싶습니다.

이원준 책임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안전환경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ESS가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초점도 전기차용 전고체전지에서 ESS에 적합한 소듐이온전지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시나요?
향후 ESS 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배터리 기술은 무엇이며,
소재·화학 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분야를 주목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ESS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당분간은 기술 성숙도와 양산 경쟁력을 갖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철과 인산염을 기반으로 하는 인산-피로인산철나트륨(NFPP, sodium iron phosphate pyrophosphate) 양극재를 사용한 소듐이온전지에 주목합니다.
낮은 원가와 긴 수명의 잠재력이 실제 대형 셀과 양산에서 구현된다면,
2030년 이후 ESS 시장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다만 원료가 저렴하다고 완제품까지 곧바로 저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에너지밀도를 보완하려면 음극재인 하드카본의 성능과 제조비용도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하연 책임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기획팀

**차세대이차전지 전략연구단에서는 국내 산·학·연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차세대 배터리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큰 경쟁상대인 중국은 공학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인재전쟁'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부기관들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인재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인구와 산업 규모가 훨씬 큰 중국과 인력의 숫자만으로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대응 방향은 국내 산학연의 역량을 연결하고, 미국·유럽 등과 개발·생산·공급망 구축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해 연구의 효율을 높이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단에서는 기관마다 다른 데이터의 용어와 단위를 통일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정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인재들이 협력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다솜 책임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재경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술과
연구 단계에서 끝날 기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공적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조업의 핵심은 품질·비용·납기를 뜻하는 QCD입니다.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으로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대량생산이 어렵거나, 생산한 제품 중 정상 제품의 비율인 수율이 낮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실험실의 최고 성능을 공장의 안정적인 품질로 바꿀 수 있는지가 기술의 운명을 가릅니다.

2026 ISU FESTA
NO FESTA NO LIFE

하나 되는 **이수**
함께 뛰는 **축제**

이수페스타

NO FESTA NO LIFE

오는 10월 30일,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 세바스티아노 스포츠센터에서
'이수페스타 2026'이 열립니다.
'NO FESTA, NO LIFE'를 슬로건으로 피지컬 챌린지와 팀 챌린지,
풋살 드림매치, 이수런 캠페인, 요가 클래스 등
다채로운 스포츠와 참여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함께 뛰고, 응원하고, 즐기며 이수페스타의 열기를 완성해 보세요.

2026. 10. 30.(금)
가톨릭관동대학교 성세바스티아노 스포츠센터

ISU 주)이수 | ISU 이수화학 | ISU 이수스페셜티케미컬 | ISU 이수페타시스 | ISU 이수건설 | ISU 이수시스템 | ISU 이수창업투자 | ISU 이수엔지스 | ISU 이수AMC

NO FESTA, NO LIFE
이수페스타 2026 프로그램

우리 모두가 모여 '하나의 ISU'로 연결되는 감동의 순간!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거리와 화려한 공연까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축제가 열립니다!



이수런 캠페인
10명의 그룹 임직원이 5km 러닝에 도전하며
이수페스타의 시작을 알립니다.
달리는 순간을 담은 영상 콘텐츠로
행사 전 페스타의 열기를 전합니다.



팀 챌린지
이수그룹 대표 선수들이 다양한 미션과
스포츠 종목에 도전하는 통합 팀 대항전입니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부터 인물·음악 퀴즈,
몸으로 말해요, 전술 줄다리기, 전자 다트,
단체 줄넘기와 계주까지! 다채로운 승부가
펼쳐집니다.



피지컬 챌린지
총 30명의 참가자가 순발력·지구력·근력을
겨루는 3개 종목에 도전합니다.
각 부문 최강자를 가리는 개인 서바이벌,
과연 이수 최고의 피지컬은 누구일까요?
세부 종목은 현장에서 공개됩니다.



풋살 드림매치
레전드 축구선수가 각 팀의 감독이 되어 참가자를
직접 선발하고 팀을 꾸립니다. 사전 드래프트를 거쳐
완성된 팀들이 현장에서 펼치는 풋살 올스타전,
선수들의 플레이와 뜨거운 응원전을 함께 즐겨보세요.



요가 클래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기장 무대 앞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요가 스트레칭 프로그램입니다.
미신청 인원도 좌석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본격적인 페스타에 앞서 가볍게 몸을 풀어보세요.



스페셜 스테이지
초대 가수 공연과 스페셜 퍼포먼스로
화려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도전'의 메시지를 담아 이수페스타의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이수페스타 예습은 끝났나요? 지금부터 실력고사를 시작합니다.

페스타 실력고사

제1교시

1

단답형

1. 이수페스타 2026의 슬로건은
‘NO _____, NO _____’이다.



□□□□□
□□□□

5지선다형

2. 순발력·지구력·근력, 세 가지 부문에서 이수 최고의 피지컬을 가리는 프로그램은?



① 미션 챌린지
② 스포츠 챌린지
③ 팀 챌린지
④ 피지컬 챌린지
⑤ 이수런 챌린지

2

3. 레전드 축구선수가 감독이 되어 참가자를 직접 선발하고 팀을 꾸려 펼치는 경기는?



① 풋살 드림매치
② 풋살 올스타컵
③ 이수 풋살리그
④ 레전드 매치
⑤ 풋살 팀 챌린지

4. 이수페스타에 앞서 10명의 그룹 임직원이 5km를 함께 달리며 행사 분위기를 알리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① 페스타 런
② 5K 이수런
③ 이수 러닝 챌린지
④ 이수런 캠페인
⑤ 팀 러닝 프로젝트

5. ‘이수페스타 2026’이 열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① 강릉종합운동장
② 가톨릭관동대학교 세바스티아노 스포츠센터
③ 강릉올림픽파크
④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조관
⑤ 강릉아레나

6.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부터 인물·음악 퀴즈, 전술 줄다리기와 계주까지 다양한 종목으로 팀워크를 겨루는 프로그램은?

① 이수런 캠페인
② 피지컬 챌린지
③ 풋살 드림매치
④ 팀 챌린지
⑤ 요가 클래스

응시기간	2026. 10. 29.(목)까지

실력고사 문제를 풀고 6개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해
아메리카노 2잔 + 케이크 1개 쿠폰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

이수펫갤러리



제이화소, <쥬디와 깜디> colored pencil on paper, 18×23cm

가만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작은 웃음을 더해주는 쥬디와 깜디.
두 아이에게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사돈 맺으실 크레 집사님, 안 계시나요?



신주연 대리
(이수앱지스 플랫폼팀)

호기심과 느긋함을 품은 크레스티드 게코

쥬디&깜디

쥬디(밝은색 친구), 깜디(까만 친구), 모두 수컷



우리 집 작은 드래곤, 쥬디 & 깜디

우리 집에는 조금 특별한 반려동물이 두 마리 있습니다. 바로 크레스티드 게코, 쥬디와 깜디입니다.

쥬디는 2024년 10월, 누군가 파양한 아이를 우연한 기회로 함께하게 되었고 2025년 10월에는 깜디를 분양받으면서 두 마리의 작은 게코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게코이지만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의 용 캐릭터를 닮은 것 같아 이름에 'D'를 넣었습니다. 쥬디는 '주연의 드래곤', 깜디는 '까만 드래곤'으로 아주 작고 귀여운 드래곤입니다.

호기심 많은 쥬디, 느긋한 깜디

둘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쥬디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라 새로운 것이 생기면 일단 확인해 봐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고, 깜디는 움직임도 적고 느긋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차분한 성격입니다.

둘을 보다 보면 가끔 '깜디가 나랑 좀 닮았는데?' 싶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굳이 뭔가 하지 않아도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일방적으로 귀여워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사육장 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 먼저 다가와 손 위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감동입니다. '혹시 나를 알아보는 건가?' 싶어서 혼자 괜히 뭉클해집니다. 물론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순간 하나면 충분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크레를 키우며 생긴 작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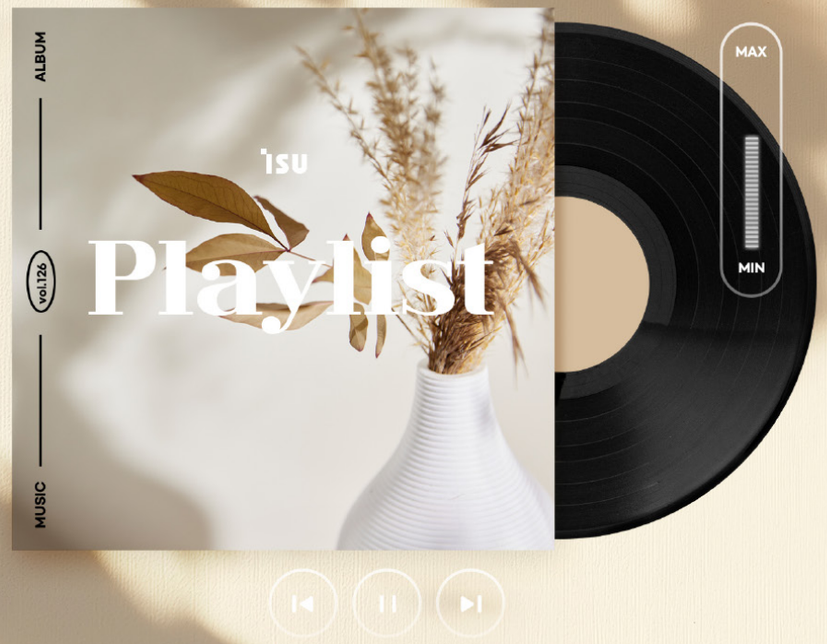
쥬디와 깜디를 키우면서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육 환경을 관리하다 보니 어느새 제 방의 습도까지 신경 쓰게 됐습니다. 처음엔 두 녀석을 잘 키우기 위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제 하루의 작은 루틴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은 탈피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가도 탈피 과정을 보면 어느새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작은 생명체가 하루하루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크레를 키우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반려동물 스토리와 사진을 공유해 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소소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반려동물의 모습을 작가의 손그림 액자로 담아 드립니다.
임직원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음악은 귀로 하는 영혼의 호흡

인생음악 공유해요!



어떤 음악은 내 일기장 같은,
딱 지금 내 맘 같은 그런 곡이 있습니다.
허공에 보낸 하소연에 돌아온
시크한 답장 같은 가사.
그 한 대목을 만나는 순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
위로받거나 응원을 얻거나
다 괜찮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음악을 공유합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기보다 과정을 즐겨도 괜찮다는 위로

박기환 사원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공무팀



요즘은 여행을 다니며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필름 카메라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지에서 사진 촬영과 함께 꼭 챙기는 또 하나의 취미가 위스키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 필름 카메라로 좋은 순간들을 기록하고, 그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스키도 하나씩 경험해 보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희수 -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실수나 실패를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잠시 여유가 필요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comment

넘어지지 않고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가사는 오히려 실패하거나 흔들리는 순간까지도 자연스레 받아들이자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안희수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I Love You
오자키 유타카



Day 1
HONNE



Square
백예린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머무르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Bluebird
Sunset Rollercoaster

꿈꾸던 어른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한예지 대리 | 이수건설 인사총무팀



올해는 유난히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창립 5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더욱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연차가 쌓일수록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고, 자연스럽게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해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 있곤 합니다.

머무르 -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사실 이 노래는 AI 기술로 만든 음악이라는 점이 신기해 관심을 갖게 된 곡입니다. 호기심에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아 놀랐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어른'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완벽해야만 어른인 것이 아니라, 조금 서툴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꿈꾸던 어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덜 상처받고, 힘들 때 잠시 기대어 갈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comment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위로를 받습니다.

화려한 사랑 노래와는 또 다른 중독성 강한 매력

김주호 사원 | 이수앱지스 인사총무팀



요즘은 '살기 위해 운동한다' 모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 3회 헬스를 목표로 하고, 퇴근 후에는 이어폰을 끼고 한 시간 정도 동네를 산책합니다. 얼마 전에는 빅뱅의 〈뱅뱅뱅〉에 필받아 안무를 따라 하다가 산책러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황급히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 모드로 돌아갔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뱅뱅뱅에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최성곤(오정세) - 니가 좋아 (영화 〈와일드씽〉 OST)

배우 오정세의 최성곤 캐릭터를 떠올리며 들으면, 이 노래가 왜 그렇게 귀엽게 들리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니가 좋아~ 니가 예뻐서 좋아, 니가 착해서 좋아" 거창한 이유 없이 좋아하는 이유를 하나씩 늘어놓는 모습이 최성곤 캐릭터와 너무 찰떡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깊은 의미를 분석하기보다 후렴구를 듣는 순간 끝입니다. 어릴 때 "사랑에 이유가 어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나열하는 가사가 어쩜 그렇게 귀여운지…

comment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학창 시절 첫사랑과 옛 인연들이 떠오릅니다.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화려한 사랑 노래와는 또 다른 소박하고 귀여운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니가 좋아
최성곤 (오정세)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영원은 그렇듯
리도어 (Redoor)



REDRED
코르티스 (CORTIS)



뱅뱅뱅
빅뱅 (BIGBANG)



See You Again
Wiz Khalifa (feat. Charlie Puth)



돈이 하게 했어
창모 (CHANGMO)

한 개인의 빛나는 순간
함께 나누면 환해지는 **우리**



우리는 수많은 <우리> 사이의 존재입니다.
잔잔하게 오는 뭉클한 감동
짜릿하게 휘감는 환호의 순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어지는 사이…
이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삶의 순간들을 넌지시 공개하는
이수 가족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스토리가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자유롭고 활발한 내적 보물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합니다.



이진호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공무팀) •••



주말의 함성, 하루 끝의 성취감이 삶의 활력소

울산에서 태어나 자라고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는 제게, 울산HD 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 15년간 울산HD를 응원하며 주말이면 홈경기는 물론 전국 곳곳으로 원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축구의 가장 큰 매력은 모두가 함께 승리를 만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목이 쉬도록 응원하다 보면 한 주의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조현우 선수인데요. 실제 경기에서 착용했던 우승 시즌 유니폼을 소장하고 있으며, 구단 유튜브 촬영을 위해 직접 저희 집을 방문한 경험도 있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말을 축구와 함께한다면 평일에는 크로스핏을 즐깁니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WOD(Workout of the Day)를 끝까지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이 큰 매력입니다.

저에게 축구와 크로스핏은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경기장의 뜨거운 열정과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취감을 많은 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울산HD #축구직관 #전국원정 #조현우 #축구팬 #크로스핏 #WOD #성취감



김나영 선임 (이수페타시스 품질보증2팀)



가장 든든한 여행메이트와 함께한 신혼여행

벌써 결혼 7개월 차입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결혼 준비 기간과 행복했던 신혼여행이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신혼여행은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로 다녀왔는데 날씨 요정인 남편 덕에 비 한 번 없이 맑은 날의 융프라우를 보고, 기차 지연도 없을 만큼 운이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벚꽃이 핀 파리였습니다. 눈앞에서 에펠탑을 마주한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잠시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ㅎㅎ 물론 신혼여행에 낭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닥난 체력과 생각보다 맞지 않는 유럽 음식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늦은 밤 기차에서 잘못 내려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제 컨디션을 먼저 살피고, 일정 체크는 물론 무거운 캐리어도 군말 없이 도맡아 들어주었습니다. 아! 젤라또를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긴 했지만요 ^^ 조금은(?) 지치고, 투닥거렸지만 그래서 더 우리다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의 가장 든든한 여행 메이트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신혼여행 #유럽여행 #파리스위스이탈리아 #우리다운여행 #여행메이트



김태훈 대리 (이수건설 시흥하중 LH)



매 순간 짜릿한 야구, 확실한 도파민 충전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야없날(야구 없는 날)'이 왠지 모르게 가장 헛헛하게 느껴집니다. 퇴근 후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응원가를 부르며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는 것이 어느새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응원하는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보는 시간은 매 순간이 짜릿함 그 자체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치열한 승부를 펼치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가슴이 뛰고 벅차오릅니다.
올해는 역시 왕조답게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 경기를 직관하거나 중계를 챙겨보는 재미에 제대로 빠져 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확실한 도파민과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면, 야구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함께 목청 높여 응원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다 보면, 월요일의 지루함도 잊고 한 주를 살아갈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삼성라이온즈 #야구 #우승후보 #야없날 #직관 #도파민 #시흥하중LH화이팅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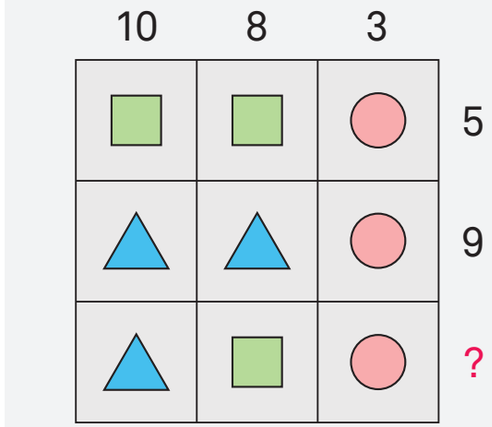
QUIZ

나도 혹시 천재일까?
뇌섹 이수인 소환!



Q 1

아래 표의 각 도형은 정해진 하나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표 위쪽의 숫자는 각 세로줄에 있는 도형의 값을 모두 더한 합, 오른쪽의 숫자는 각 가로줄에 있는 도형의 값을 모두 더한 합입니다.
각 도형이 나타내는 숫자를 찾아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를 구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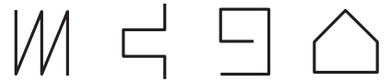
여름호 **정답**



A 논리 퀴즈 정답

Quiz1

각 줄마다 도형을 이루는 선의 개수가 같습니다.
첫 번째 줄은 3개, 두 번째 줄은 4개, 세 번째 줄은 5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배열되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물음표에는 5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③번 도형이 들어갑니다.



정답 : ③번 

A 추리 퀴즈 정답

Quiz2 회의실 중앙의 이상한 디지털 숫자





256↔952의 경우,
256의 합은 13이고 짝수는 2개이며,
952의 합은 16입니다.
다만 952는 모두 홀수가 아니므로
김대리의 진술만 거짓이 됩니다.

166↔991의 경우,
166의 합은 13이고 짝수는 2개이며,
991은 모두 홀수입니다.
하지만 991의 합은 19이므로
박차장의 진술만 거짓이 됩니다.

정답 : 김대리 또는 박차장

2026년 여름호 당첨자
(※가나다순)

김영철 기선(이수페타시스 품질보증파트)
노항택 기정(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파트)
이재일 사원(이수화학 안전환경2팀)
이정환 수석(이수스페셜티케미컬 설비파트)
천승열 차장(이수건설 경영기획팀)

리허설 뒤의 리모컨



Q2

이수그룹 계열사 임직원 4명이 사내 발표를 앞두고 차례로 리허설을 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뒤, 발표 리모컨이 늘 두던 받침대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찾고 보니 리모컨은 충전함 안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겹치지 않게 한 명씩, 각자 한 차례 리허설을 했습니다.
다른 사용자는 없었으며, 각자 자신의 차례에만 같은 리모컨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사용자가 리모컨을 충전함에 넣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은 정대리가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 리허설 순서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네 사람 중 한 사람만 기억 착오로 잘못 말했고, 나머지 세 사람의 진술은 모두 사실입니다.**

네 사람의 기억

	정대리	“제 바로 다음 차례는 윤과장님이었어요.”
	한대리	“저는 오차장님보다 나중에 리허설을 했어요.”
	오차장	“저는 정대리보다 나중에 리허설을 했어요.”
	윤과장	“제 뒤에 리허설을 한 사람은 오차장님 한 분뿐이었어요.”

문제) 마지막으로 리허설을 하고 리모컨을 충전함에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수인의 브레인 체조 <이수더지니어스>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Q1~2를 모두 맞힌 분 중 선착순 5분께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퀴즈 응모 마감: 11월 10일)**

한 문장을 천천히 읽고
손으로 오래 남기는 시간
이수텍스트힙



빠른 화면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요즘 가장 힙한 일,
손으로 따라 쓰는 필사 루틴

빠른 화면과 짧은 콘텐츠가 익숙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문장을 읽고 손으로 옮겨 쓰는 시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좋은 문장을 따라 쓰는 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단어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잠시 멈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수 텍스트 힙**〉은 한 문장을 천천히 읽고,
직접 손으로 옮겨 쓰며 생각을 정리하는 필사 힐링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골랐습니다.
바쁜 하루 속 잠시 속도를 늦추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이번 호의 문장을 직접 필사해 보세요. 완성한 필사 사진과 짧은 소감을 보내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합니다.
제출 내용 : 필사 사진 1~2장 + 짧은 소감
선정된 분께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접수기간: 11월 20일까지)**

오늘은 단 한 번뿐이니까



오늘은 단 한 번 찾아오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내일이면

오늘이 다시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하루이며

그 역시 단 한 번뿐이다.

하루하루가 삶을 이루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Counsels and Maxims』에서 발췌·의역.
익숙하게 반복되는 하루도, 사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장을 따라 쓰며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겨 봅니다.

스토리셰프가
차려내는
식탁

글: 칼럼니스트 이재향

맛있는 씨름
한 접시의 카타르시스
낙 지



탱글하게 저항하다 말캉하게 무너지는
낙지의 미덕에서 얻는 위로와
귀가 먹먹하게 매운맛을 치른 후의
해방감과 승리감 혹은
통쾌한 패배감을 안겨주는
한 접시의 카타르시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얻기 어려운
힐링 코스이리라…

어느 가을날 퇴근길
극한 체험을 안겨줄
한판 맛있는 씨름, 낙지볶음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 매워도 다시 한입

난 돈은 없지만서도 풀고 싶어 피로/ 열일 해서 번 나의 pay/ 전부 다 내 배에/ 티끌 모아 티끌 탕진잼 다 지불해

BTS의 노래 <고민보다 Go> 가사 중에 **탕진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죠. 자신의 유무형 자산을 다 써버린 후의 후련한 재미를 이르는 말입니다. 얼마 전 맵기로 유명한 낙지볶음집에서 마주친 한 무리의 여고생들, 정글에서 발견된 펭귄만치나 생소해 말을 붙여봤는데요. 가을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우리끼리 낙지볶음 먹자 해서 돈 모아 온 거예요. 죽도록 매운(hot) 낙지볶음에다 얼얼한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시험 스트레스 싹 날아가거든요~

초긴장을 요하는 중간고사를 마치고 우르르 달려가 구강점막을 온통 물어뜯을 매운맛에 도전해 **인내심의 바닥까지 밀어붙이곤 기꺼이 나가떨어지는 탕진잼의 일종**은 아니었을까…

낙지볶음…그 극강 붉은 한 접시를 떠올리기만 해도 어금니 뒤 점막이 활활 거리고 이마와 두피 사이에 땀이 송송!! 삶에서 마주치는 만만찮은 매운맛에 정면으로 맞짱 뜰 낙지볶음에 슴슴한 콩나물 한 대접 흐뭇하게 누리고 나면 존재의 멱살을 잡고 있던 전의나 투지도 스르르 물러나면서 **세포를 활짝 깨우는 개운함**이 전신에 퍼집니다.

갯벌 속의 산삼, 명불허전 낙지

가을에 떠오르는 대표 해산물로 전어와 대하를 꼽지만, 제철에 맛을 본 이들은 낙지를 **가을 별미 0순위**로 칩니다. 갯벌 속의 산삼이라는 낙지는 9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이라 꽃낙지라고도 합니다. 농사일을 하던 소가 비실거릴 때 낙지를 배춧잎 등에 싸서 주면 게걸스럽게 먹고 이내 기운이 펄펄~~!! 뿐만 아니라 청도 소싸움대회에서 싸움소에게 낙지를 먹이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상의 맛을 누리는 때와 철을 가려 문어와 낙지, 주꾸미를 각각의 특성에 따라 즐기는 등 해산물 미식 디테일이 각별합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장위(章鱼, zhāngyú), 일본은 타코(たこ)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낙지와 문어를 통쳐서 사용한다니 낙지도 문어도 둘 다 언짢을 일!! 지구상 독보적인 갯벌과 서해 전반의 미네랄 농도로 우리 낙지의 명성이 자자해 중국과의 교역품목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옛 문헌에 언급된 낙지

낙지가 식재료로 언급된 우리나라의 문헌 가운데, 1613년에 간행된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몸을 보하고 기력을 증진시키는 약재 및 식재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낙지를 '얽힌 발을 지닌 물고기'라는 뜻의 낙제어(絡蹄魚)라 쓰며, "살이 희고 맛은 달콤하고 좋으며, 회와 국 및 포를 만들기에 좋다. 사람의 원기를 돋우며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소에게 낙지를 서너 마리만 먹이면 거뜬히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산(茶山) 정약용의 **<탐진어가>**에는 "어촌에서 모두 낙지국을 즐겨 먹으며 붉은 새우와 맛조개는 쳐주지도 않는다."며 낙지를 최고의 해물로 쳤습니다.

조선의 학자 이덕무의 저서 **<청장관전서>**에는 낙지의 한자 표기 낙제(絡蹄)가 시험에 떨어진다는 낙제(落第)와 발음이 같아 과거를 앞둔 선비들은 낙지 먹기를 금기시했다 합니다. 반면 문어의 '문'자가 '文(글월 문)'이라 특별히 찾아 먹었다니 오늘날 수험생들이 미역국을 피하고 찹쌀떡을 먹는 것과 상통합니다.



<자산어보>
정약전이 흑산도를 포함하여 서남해에 서식하는 생물을 연구한 최초의 수산학서, 해양생물학서.
(출처: 인물한국사)



쫄깃, 말캉, 쌔롱, 멀티 식감 낙지의 멀티 영양

고래나 삼치가 부위별 다른 맛이듯 작은 낙지 한 마리도 그렇습니다.
머리·가슴·배 중에 다 생략하고 큰 머리에 다리만 있는 우주적인 비주얼이지만,
머리살은 쫄깃, 허벅지는 말캉, 빨판 비중이 큰 종아리 하단은 쌔롱~~. 살짝 익힌 낙지에서 얻는 식감의 종합선물에 목젖 심층부까지 구강 전반의 희열을 안겨주는 맛은 물론, 영양까지 멀티라서 낙지 한 마리가 인삼 한 근과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보약 반열의 해산물입니다. 인, 철분, 칼슘, 칼륨 등 무기질 함량이 높으며 아미노산도 다량 함유되어 남녀노소에게 두루 훌륭한 보양식이죠. 중국 의학서인 **<천주본초>에도 익기양혈(益氣養血)**, 즉 기를 더해주고 피를 함양해 온몸에 힘이 없고 숨이 찰 때 좋다고 했습니다.


가늘고 여린 다리가 특징인 세발낙지

똑똑한 낙지, 종류와 특징

낙지는 크게 갯벌에 서식하는 갯벌낙지와 바다에 서식하는 바다낙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갯벌낙지**는 지역에 따라 뻘낙지라고도 하며, 갯벌 속 작은 게나 새우, 갯지렁이, 조개 등을 먹고 자라 식감이 부드럽죠. 그중 **세발낙지**는 발이 3개라는 뜻이 아니라, '세(細)'가 가늘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별도의 종이라기보다 어린 낙지를 일컫는 말로, 크기가 작고 다리가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다낙지는 바다 저층에 서식하며 통발로 잡는 경우가 많아 통발낙지라고도 합니다. 갯벌낙지에 비해 다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육질이 단단한 편이죠. 산란기는 5~6월이며, 바위틈이나 진흙을 판 굴속에 있다가 팔을 밖으로 내어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쫓기거나 위급할 때는 먹물을 뿜어 몸을 보호합니다. 똑똑하기로 겨루자면 문어와 막상막하랍니다.

낙지 한 상, 낙지의 맛있는 위로

진도 출신 판소리 명창 신영희 선생님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고향의 옛 단골 낙지집에 갔는데요. 낙지연포탕을 맛본 뒤 "그래 요것 이제, 내 님의 샛바닥 맛이어요~이"라는 한마디를 남도 특유의 걸판진 가락에 실어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신영희표 낙지 예찬은 확실히 귀를 쫑긋하게 하죠.

낙지 요리로 낙지볶음, 낙지연포탕, 낙지전골, 낙지찜, 낙지탕, 갈낙탕 등은 잘 아실 테고요. 지역 별미로 충남 태안군의 박속밀국낙지, 전남 고흥군의 낙지팥죽, 전남 지역의 낙지호롱, 그리고 낙지와 닭, 인삼 등을 함께 끓인 낙삼탕 등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저마다의 재료와 조리법을 더해 낙지의 맛을 다채롭게 즐겨온 것이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낙지 요리

낙지볶음



매운맛의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스코빌 척도(Scoville Heat Units)라 합니다. 식당마다 레시피는 비밀이라지만 공통점은 팽팽한 매운맛으로 승부한다는 것.
1차 눈맛을 충족시키는 비주얼에 이미 땀이 송골송골, 본격적인 미각 영역으로 넘어가면 가히 테러 수준의 캡사이신 폭탄의 포로가 되어 미식 행렬은 이어집니다.

산낙지



살아 있는 낙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참기름과 날계란 등에 버무려 먹는 음식입니다.
손질할 때 칼로 도마를 '탕탕' 내리치며 잘라낸다고 해서 '낙지탕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 낙지 본연의 맛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낙지찜



콩나물과 파 등 갖은 채소 위에 산낙지를 통째로 올려 함께 익혀 먹는 요리입니다. 아삭한 채소와 쫄깃하게 익은 낙지가 어우러져 식감이 풍성하죠.
김 위에 낙지와 콩나물을 올리고 부추, 날치알 등을 곁들이면 매콤하고 다채로운 맛을 한입에 즐길 수 있습니다.

연포탕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는 두부를 꼬치에 꽂아 닭고기 국물에 지져 먹는 모임인 연포회가 언급되며, 여기서 연포(軟泡)는 두부를 뜻합니다. 이후 서해에서 흔하던 낙지를 대신 넣어 끓이면서 낙지연포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맑은 국물에 산낙지와 채소를 살짝 익혀 특별한 양념 없이 낙지의 담백한 맛과 말캉 쫄깃한 식감을 즐깁니다.

지역 특색을 담은 낙지 별미



박속밀국낙지탕 (태안)



태안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하얀 박속을 썰어 넣고 낙지와 함께 끓여 먹는 음식입니다.
이름 때문에 박을 파내 그 안에 낙지를 넣는 요리로 오해하기 쉽지만, 무 대신 박속을 넣어 개운한 국물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죠.
여름철에는 부드러운 세발낙지를 주로 사용하고, 10월 이후에는 일반 낙지를 넣어 즐깁니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낙삼탕 (전남)



'낙지 삼계탕'의 줄임말로, 닭과 낙지를 중심으로 새우와 전복 등 다양한 해물에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어 끓인 보양 음식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낙지가 통째로 올라가며, 쫄깃한 낙지와 부드러운 닭고기가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낙지호롱 (무안)



'호롱'은 볏짚을 뜻하는 방언으로, 오늘날에는 짚 대신 나무젓가락에 신선한 낙지를 돌돌 말아 양념장을 발라 굽는 전남 지역 향토음식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귀한 음식이라 이바지 음식으로도 대접받았죠. 무안에서는 세발낙지를 통째로 감아 참기름을 발라 담백하게 구워 즐깁니다.
(출처: 전남 무안 구로회수산)

낙지팥죽 (고흥)



전남 고흥에서 즐겨 먹는 지역 음식으로, 팥죽에 낙지를 함께 넣어 푹 끓여 먹습니다.
예전에는 크기가 커 질긴 낙지를 생이나 숙회로 먹기 어려워 가마솥에 오래 삶아 부드럽게 만든 데서 비롯된 음식인데요. 낙지와 팥을 함께 조리해 든든하게 즐길 수 있어 겨울철 별미로도 사랑받습니다.
(출처: kbs 2tv 생생정보)

낙지 외식의 양대 산맥, 무교동낙지 vs 조방낙지

낙지가 제철인 스산한 가을날, 매운 낙지볶음에 기꺼이 시달려보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탓인지 유난히 매운 낙지볶음이 생각나는 날도 있죠. 눈물 나게 맵고 말캉 쫀득 오묘한 낙지볶음으로 저마다의 애환을 달래는 차원에서, 올가을에도 여전히 낙지골목은 붐빌 것이며, 그 자리에 친구나 직장 동료가 함께할 수 있다면 괜찮은 가을, 괜찮은 한 해일 터.

무교동낙지 | 서울 무교동과 서린동 일대의 낙지 골목에서 생긴 이름이 고유명사화된 것입니다. 이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음식점이 발달한 곳으로,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이 숙식을 해결하곤 했던 역사 깊은 먹자골목이었답니다. 1960년대 종로구 서린동에 낙지 골목이 형성된 뒤 청계천 인근 언론인과 공무원을 비롯한 직장인들이 즐겨 찾았죠. 매운 낙지볶음과 시원한 조개탕을 곁들여 먹으며 삶의 애환과 스트레스를 날렸던 낭만과 추억의 장소입니다. 50년 이상 이어진 무교동 낙지골목의 전문점들은 재개발 이후 광화문 르메이에르빌딩이나 그 주변으로 옮겼습니다.

조방낙지 | 부산의 낙지 명물 '조방'은 낙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선방직(朝鮮紡織)이라는 회사를 줄인 말입니다. 일제 때 부산 범일동에 있던 조선방직 주변에는 낙지볶음집이 많았고, 조선인 노동자들은 퇴근 후 이곳에서 끼니를 때우며 애환을 함께하던 먹자골목이었죠. 해방 후 조선방직이 떠난 자리에 자유시장이 생긴 뒤에도 식당들이 남아 외지 상인들의 배고픔을 달랬고,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조방낙지가 퍼졌습니다. 무교동낙지에 비해 덜 맵고 국물이 잘박해 식사나 술안주로 인기 있습니다.



무교동 낙지볶음 (출처: 무교동 유정낙지)



조방 낙곱새(낙지·곱창·새우)볶음 (출처: 원조할매낙지)

낙지에서 문어까지, 세계의 두족류 요리

여러 나라에서도 같은 두족류인 문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깁니다. 세계의 문어 요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익숙한 낙지로 색다르게 응용해 보면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페인 | **풀포 아 라 가예가(Pulpo a la Gallega):**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요리로, 부드럽게 삶은 작은 문어류에 올리브오일과 굵은 소금, 파프리카 가루를 곁들여 먹습니다.

이탈리아 | **폴페티 아포가티(Polpetti Affogati):** 작은 문어류를 토마토와 마늘, 올리브오일 등과 함께 부드럽게 졸여 먹는 나폴리식 요리입니다.

그리스 | **그릴드 옥토퍼스(Grilled Octopus):** 그리스 섬 지역에서는 문어를 햇볕에 말린 뒤 구워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오일과 레몬을 곁들여 지중해 특유의 담백한 맛을 즐깁니다.

포르투갈 | **폴보 아 라가레이로(Polvo à Lagareiro):** 삶은 문어를 마늘과 올리브오일에 버무려 감자와 함께 오븐에 구워내는 포르투갈 전통 요리입니다.



풀포 아 라 가예가



폴페티 아포가티
(출처: agrodolce.it)



그릴드 옥토퍼스
(출처: boldappetite.com)

가을, 다시 낙지 한 접시

뜨끈한 연포탕 한 그릇도 좋고, 혀가 얼얼한 낙지볶음 한 접시도 좋습니다. 지역마다, 조리법마다 조금씩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낙지는 익숙하면서도 늘 새로운 식재료죠. 한 끼의 보양식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둘러앉는 술안주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색다른 맛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올가을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낙지 한 접시로 맛있는 위로와 작은 카타르시스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양윤화,<A Folding dog>, 2023, 퍼포먼스, 55분.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 작가 제공.

일정 기간 머물다 떠나는 한시성에 대한 사유

로딩존(Loading Zone)

2026. 11. 14 - 2027. 1. 29

이수그룹의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는 2026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신석호와 양윤화가 참여하는 전시 ≪로딩존(Loading Zone)≫을 개최합니다.
'로딩존'은 짐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구역으로,
이번 전시는 이러한 일시적인 정지와 이동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철과 천 등 서로 다른 재료와 신체가 만나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통해 정지와 이동,
균형과 변화의 순간을 소개합니다.

신석호 (Seokho Shin, b. 1993)
신석호는 몸이 경험하는 물질들의 완고함을 유희적으로 전유하며, 움직이는 구조물과 스스로의 몸 사이에서 발생하는 코레오그래피를 다룹니다. 작가는 가변적인 구조물을 접고 펼치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작품의 동력으로 개입시킵니다. 최근 개인전 ≪룸몰 RoomooR≫(팩션, 2026)에서는 벽, 바닥, 천장 등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을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각적 상태로 해석하고, 이를 직접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공간과 신체, 물질 사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양윤화 (Yunhwa Yang, b. 1993)
양윤화는 퍼포먼스, 사운드, 설치를 오가며 조각과 신체, 움직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작업해왔습니다. 천과 종이처럼 가볍고 유연한 재료를 활용해 이동과 보관이 가능한 조각을 만들며, 이러한 조각을 반복해서 이동시키고 접고 펼치는 행위를 퍼포먼스로 연결합니다. 2025년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개인전 ≪오렌지≫에서는 작품의 설치와 철수 과정까지 퍼포먼스로 다루었습니다.



신석호,<벽>, 2026, 철, 나무, 경첩, 가변크기. 작가 제공.

짧은 정지와 이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주목
'로딩존(Loading Zone)'에서 일시적으로 멈춰 있던 사람과 사물은 '로딩(loading)'이 끝나면 다시 움직이고, 공간은 다음을 위해 비워집니다. 《로딩존》은 이러한 짧은 정지와 이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와 공간, 물질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신석호와 양윤화는 서로 다른 재료에서 출발하지만, 물질과 신체가 서로의 조건을 탐색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조각의 형성 과정을 실재적인 변화의 움직임으로 눈앞에 선연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만납니다.



신석호,<천장>, 2026, 철, 경첩, 141 x 104 x 87cm. 작가 제공.

물리적 조건에 따라 서로 교류하는 일련의 동작

신석호는 철제를 활용해 변신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관절을 가진 철제 구조물은 작가의 신체가 동력이 되어 움직이며 이때 물질과 신체는 힘, 무게, 크기, 위치, 가동 범위와 같은 물리적 조건에 따라 서로 교류하는 파트너가 되어 일련의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의 시간과 공간은 조각의 일부가 됩니다.



신석호,<바닥>, 2026, 철, 나무, 경첩, 210 x 112 x 188cm. 작가 제공.

사물의 보편성과 오브제의 고유성, 그 상호작용

양윤화의 작업은 천과 종이처럼 가볍고 유연한 재료와 몸이 만나 사물이 일어서서 공간을 점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력에 의해 축 늘어진 천 아래로 몸을 넣고 밀어 올리면 재료가 등과 어깨, 척추를 따라 부풀어 오르며 신체의 골격, 크기, 위치에 따라 작품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철과 천이라는 서로 다른 재료는 각자의 방식으로 몸의 움직임을 이끌게 됩니다.



양윤화, <**오팔**> 2024, 퍼포먼스, 50분. 아트스페이스3, 서울. 작가 제공.

정지와 움직임, 균형에 대한 사유

신석호의 작업에서는 철의 구조와 무게가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양윤화의 작업에서는 지지체가 되는 몸이 천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물리적 조건을 시험하며 사물을 움직이는 주체로서의 신체와,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볍고 납작한 사물에 임시적으로 부피를 만들어내는 신체는 정지와 움직임 사이에서 형상을 다룹니다. 신체가 빠져나간 철제 구조는 균형을 찾아 움직임이 멈춘 자리에 놓이고, 천은 중력에 따라 다시 처지게 됩니다.



양윤화, <오렌지> 2025, 60수 고밀도 워싱 코튼, 양털 테리 원단,
방수 원단, 자수 실, 저데니아 솜, 500×500cm. 작가 제공.

가시적 세계의 임시성과 시간성에 대한 찰나의 각성

관람자는 작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마주하거나, 그 과정이 지나간 뒤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전시가 들어오고 나가는 '스페이스 이수'에서 ≪로딩존≫은 작품이 잠시 정지하는 구역이자 사람들의 시선이 멈추는 장소로서 일정 기간 머물다 떠나게 됩니다. 접혔다가 펼쳐지고, 납작했다가 부풀고, 성큼성큼 위치를 바꾸다가 이내 멈춰 서서 움직임을 예비하는 조각들은 이 물리적 세계의 임시성을 보여주는 한편,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성을 지닌 또 다른 차원의 입체성을 드러냅니다.

눈코입을 사로잡는
간식 서프라이즈



바쁜 하루 중, 잠깐의 휴식이 유난히 반가운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 팀을 웃게 해줄 맛있는 간식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달려온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고마움,
우리 팀만의 유쾌한 자랑과 함께 들려주세요.

<우리 팀이 간식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재치 있게 샤라웃(shout out) 하면,
이수 간식 창고가 든든한 간식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다음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의 팀일지도 몰라요!

이수그룹 전 계열사 부서 및 팀의 간식 신청 사연을 기다립니다. (접수기간: 11월 20일까지, 발표: 11월 말)
우리 팀 자랑과 함께 '간식이 필요한 이유'와 치킨, 피자, 커피 음료 등 '원하는 메뉴'를 사연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당선된 사연 및 사진, 간식 후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당선 후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팀에게 쏘세요!!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생산파트

황현서 기정

함께라서 더 달콤했던 우리 팀의 간식시간

평소 각자 맡은 업무와 근무 장소가 다르다 보니 같은 팀이면서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간식 이벤트 당첨 소식을 듣게 되었고, 덕분에 모처럼 팀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간식을 나누며 평소 못다 한 이야기도 하고 웃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특히 올여름 유난히 더웠던 날씨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팀원들에게 이번 간식이 작지만 기분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팀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간식 선물에 즐거워했고,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하며 잠시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좋은 추억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어 신청자로서도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자리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우리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와 기분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수앱지스 인사총무팀

김주호 사원

피자 한 조각에 배터리 1%에서 풀충전!

다들 모르시겠지만 이 회사, 저희 인사총무팀 없으면 진짜 하루도 안 굴러가요. 출근하면 컴퓨터가 켜지는 것도, 회의실 예약이 되는 것도, 월급이 제날짜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도 다 저희 손끝에서 나오는 마법이라고요! 그런데 요즘 팀 전체가 업무에 치여 배터리 1% 상태였던 터라 "인사총무팀 배를 채워달라!"며 피자를 간절히 외쳤는데, 정말 당첨될 줄은 몰랐습니다. 😲

평소 각종 행사 준비, 시설 관리, 문의 응대, 문서 작업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인사총무팀에게 이번 피자 선물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업무로 분주한 와중에도 다 함께 모여 맛있는 피자를 먹으며 잠시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1%였던 팀원들이 피자 한 조각에 금세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물론, 함께 식사하며 팀원 간 소통할 수 있는 시간까지 선물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수앱지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좋은 추억과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수페타시스
설비자동화팀
천홍기 사원



뜨거운 현장 뒤, 함께 나눈 간식은 더 꿀맛!

여름휴가 기간에도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야 했던 설비파트에 따뜻한 간식 이벤트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팀은 업무 특성상 공장이 멈춰 있는 기간을 활용해 시스템과 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4일 동안 평소에는 점검하기 어려웠던 설비들을 살펴보고 정비를 진행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까지 더해져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서로 챙기며 무사히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식 이벤트에 선정되어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한 팀원들과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뜻깊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로 바빠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현장에서 고생한 우리 설비파트,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챙기며 안전하고 즐겁게 함께해요! 😍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김상현 기선
(이수페타시스 품질검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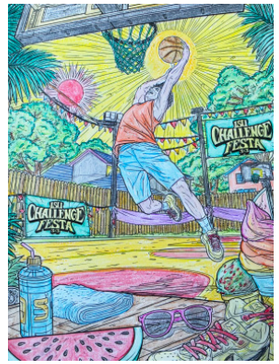
김창범 기선
(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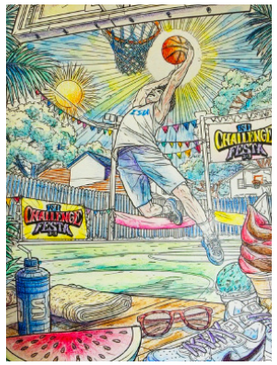
송재우 기정
(이수페타시스 공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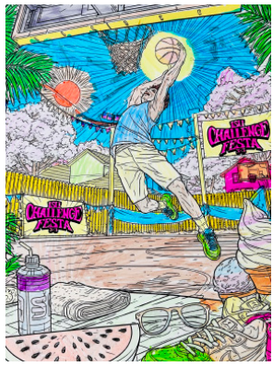
안병락 기선
(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원태규 사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생산파트)



유혜수 선임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영업1팀)



제갈영철 사원
(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한권흠 차장
(이수앱지스 원료파트)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01 컬러링을 한다

02 인증샷을 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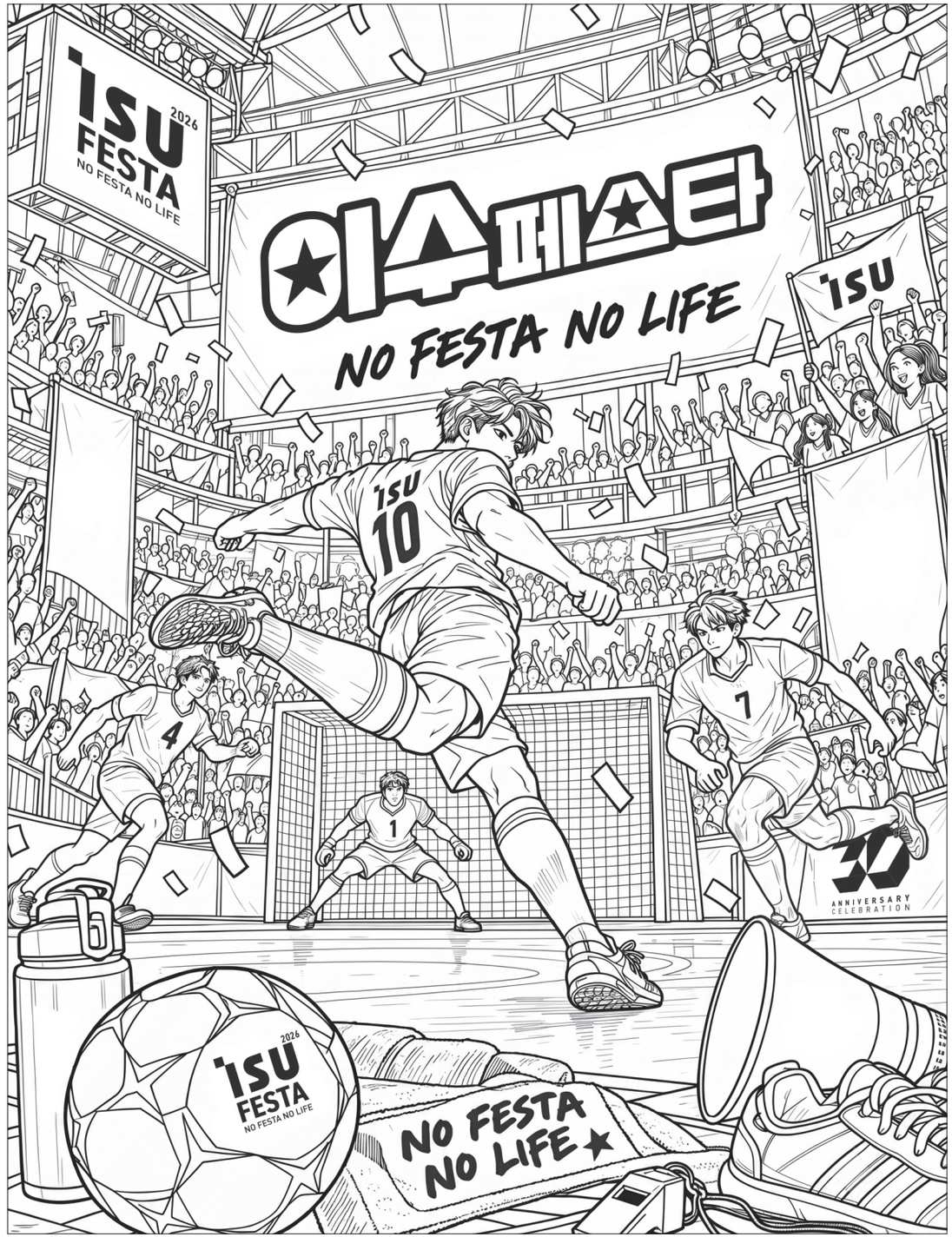
03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2026년
여름호 당첨자
(※가나다순)

김상현 기선(이수페타시스 품질검사팀)
김창범 기선(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송재우 기정(이수페타시스 공무팀)
안병락 기선(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원태규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생산파트)
유혜수 선임(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영업1팀)
제갈영철 사원(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한권흠 차장(이수앱지스 원료파트)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겨울호 원고 마감은 12월 15일입니다.



※ 상기 일러스트는 <**이수페스타, 풋살의 순간을 색으로 채우다**>로 AI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2026
ISU FESTA
NO FESTA NO LIFE
ISU | 30 ANNIVERSARY CELEBRATION
이수페스타
NO FESTA NO LIFE
2026. 10. 30. (금)
가톨릭관동대학교 성세바스티아노 스포츠센터
PHYSICAL CHALLENGE
피지컬 챌린지
TEAM CHALLENGE
팀 챌린지
FUTSAL DREAM MATCH
풋살 드림매치
SPECIAL STAGE
스페셜 스테이지
ISU ㈜이수
ISU 이수화학
ISU 이수스페셜티케미컬
ISU 이수페타시스
ISU 이수건설
ISU 이수시스템
ISU 이수창업투자
ISU 이수엠지스
ISU 이수AMC